

문화일보 오피니언

기사 게재 일자 : 2013년 08월 22일

<時評>

日 역사인식 후퇴와 한·중·일 三夢

박철희/서울대 교수, 일본연구소장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가 뒤틀려 있다. 한·중·일 3국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야기하려 하지도 않고, 서로 마음을 열어 놓으려 하지도 않는다. 3국이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 형국이다. 올해는 한·중·일 정상회담이 한국에서 열릴 해인데 중국과 일본은 마주 앉기 싫다고 한다.



중국을 바라보는 일본의 눈은 차갑기만 하다. 센카쿠 열도(중국명 '다오위다오')를 둘러싼 갈등으로 서로 마음이 상할 대로 상했다. 일본은 중국을 경제와 위협의 대상으로 보고 중국에 대한 포위망 구축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은 반일(反日) 자세를 굽히지 않으면서 일본보다 미국을 상대하려고 한다. 미국의 아시아 회귀를 중국에 대한 대항책으로 보고 미국과의 신형 대국관계 설정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은 중국을 살갑게 대하지만 일본을 보는 눈은 곱지가 않다. 핵(核)·미사일 등으로 두통거리인 북한을 길들이려면 중국의 협력이 필요하다. 그러니 우리의 요구에 화답해 주는 중국이 가깝게 다가선다. 그 반면, 과거사에 대한 사과나 반성은커녕 지난날에 했던 사과나 반성도 다시 생각해보겠다는 일본이 맘에 들 리가 없다. 일본은 역사 문제로 한국을 발로 내차고 있는 사정은 뒤로하고 그저 한국을 이제는 부상하는 중국에 치우쳐 버린 배신자로 보고 있다. 한·중·일 3국의 상대에 대한 보도도 부정적인 것이 먼저 대중에게 다가가고 있다. 이러다 보니 3국은 동상이몽(同床異夢)이 아니라 동상삼몽(同床三夢)을 꾸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현실을 들여다보면 남 탓만 할 수 없는 지경이다. 한·중·일이 서로 영토 문제로 얽혀 있다. 일본은 자신들이 실효지배 하고 있는 센카쿠에 중국이 영토적인 야심을 부리고 있다고 한다. 그런 일본은 한국이 실효지배 하고 있는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긴다. 하지만 중국이 무력을 사용해 센카쿠를 뺏아가는 일은 상상하기 어렵다. 일본도 독도에 대한 현상 변경을 시도할 현실적 방법은 없다. 결국 한·중·일 3국을 뜨겁게 하고 있는 영토 문제에 관한 한, 현상 변경을 추구하지 않는 해결밖에 없을 것이다. 영토를 둘러싼 갈등을 인식하면서도 서로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다른 분야의 협력을 병행했던 선배들의 지혜를 다시 살릴 필요가 있다.

역사 인식 문제는 한·중을 괴롭히는 또 하나의 난제다. 일본이 지난날의 사과와 반성, 그리고 보상을 자학사관(自虐史觀)에 기초한 것이라며 이를 수정 내지 되돌리려는 시도가 인식의 갭을 확대하고 있다. 일본의 우파들은 지난 시절 일본의 사과와 반성에 대해 주변국들이 평가를 안 해줄 뿐만 아니라 뒤로 물러서면 한도 끝도 없이 일본의 체면을 구기는 요구를 거듭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자존심을 세운다면 금기 사항까지 입에 올리는 어깃장까지 피운다. 그러다 보니 역설적으로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하는 한·중의 목소리는 높아만 간다.

이런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일본의 건전한 보수가 '우파적인 생각'들이 무리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 엄중하게 비판하는 자정의 목소리가 일본 국내에서 나와야 한다. 주변국의 반대에 지쳤다고 침묵하고 있으면 결국 우파의 목소리만 전달되기 때문이다. 일본의 자성과 더불어 한국과 중국도 스스로 지나치게 과

거 중심적 사고의 틀에 사로잡혀 있는 건 아닌지 자성해 봐야 한다. 한·중·일이 서로를 비난하면서 사실은 스스로도 과거사의 노예가 돼 있다는 자각을 할 때 갈등을 위한 역사가 아닌, 화해를 위한 역사를 논할 기회가 찾아올 것이다.

대화를 하지 않고서는 3국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는 절박감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다. 한국은 국제 사회의 보편칙을 준수하면서도 상대국에 위협을 주지 않는 중견국으로서 동아시아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할 선도자 역할을 마다해선 안된다. 중국·일본과 한자리에서 만나 대화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

마침 올해는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의 개최국이니 중·일 관계가 나쁘다는 탓만 하지 말고 양국의 손을 맞잡고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서 갈등의 골을 좁히는 역할을 하기 바란다. 상대방이 먼저 손을 내밀기를 기다리기보다는 한·중·일의 중심에 한국이 선다는 자부심과 자신감으로 외교적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길 기대한다.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